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7호 【주제 제25480호】 주제 105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의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훈연명령을 높이 받들고
2017년도 전투정치훈련에
일제히 진입하여 훈연혁명의
불길, 군력강화의 불바람
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백두산혁명강군의 전투력을
무전막강하게 다져나갈 천만
장병들의 거세찬 훈연열, 무
쟁열이 전군에 세차게 끓어
번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과멸의 나락에 굴러떨어지면
서조차 불장난길로 잔명을
부지해 보려고 미쳐날뛰는
남조선 박근혜역적정권에
대한 증오를 한껏 폭발시키며
백두산총대의 멸척의 피성이
울렸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2월 1일 조선인민군 전선
포병부대들의 포병대집중
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상
장 리영길 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육군중장 박정원 동지와 조선인민군
군단장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은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이 시작된 첫날이
라고 하시면서 <훈연도 전투다!>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심장마다에 새겨
안고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에 한사람같이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
가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싸움의 날 명증포성만을 울
리는것으로써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군
령도업적을 빛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선포병부대들의 포병대
집중화력타격연습은 사면초
가의 위기에 몰린 가련한 제
집안의 처지도 모르고 어리석
은 망상에 사로잡혀 부질없는
전쟁개기를 부리며 또다시 서
남조선수역 우리의 면전에서
무모하고 몰방스러운 포사격
질을 해낸 남조선피괴역적정
당에게 우리 천만군민의 무서
운 보복열기와 백두산총대의
위력을 다시한번 특특히 보여
주는 계기로 되며 엄중한 최
후의 경고로 전달될것이다.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
에는 남조선피괴 서북도서방
위시령부탄하 6해병터탄과
연평부대를 끌어버릴 임무를

맡고있는 서남조선수역 최전방의 섬방
어대 포병구분대들과 서울시를 비롯한
전선주타격방향과 보조타격방향의 남조
선작전지대 군사대상물들과 반동통치기
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있는 전선
중장거리포병구분대들이 참가하였다.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은 일제사격
과 급속사격으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내리신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
들이 드디어 섬멸의 포문을 열었다.

떨쳐나선 전군의 장병들을 열렬히 축하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총대로
조국과 인민을 사수하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인민군대에
있어서 훈연강화는 혁명의 운명, 혁명
무력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신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대,
구분대들이 당의 훈연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훈연을 드세게 내밀어 전군
이 백두산훈연열풍으로 용암처럼 끓어
번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7년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돐, 조선인민
군창건 85돐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하시면서 필승의 신심드높이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
으로써 다음해를 전투력강화의 자랑찬
성파로 빛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에 진입한 날에 울리는
장쾌한 포성은 전군의 장병들을 당의
훈연명령판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시대

오르시어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
의 화력진지배지상래와 포병대집중
화력타격연습계획에 대한 보고를 정취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km의
해안가에 준비하게 늘어선 수백문의 대
구경자형포를 바라보시며 분만 하다
고, 요란하다고, 마치도 포무기주탄을 쫓
쳐놓는것만 같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불쾌의
위용을 펼치며 전지를 차지하고있는
저 포무기들에는 인민군대의 포병무력
강화를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2 번 으 로 계 속

